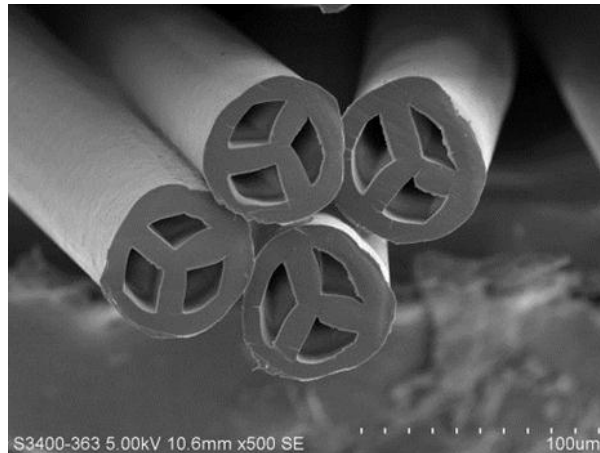


세 개의 중공을 갖는 중공단면섬유 'LIVE AIR'

MITSUBISHI RAYON社は MRC Pylon社와 함께 세 개의 중공을 갖는 중공단면섬유 'LIVE AIR'를 개발하였다.

'LIVE AIR'는 폴리프로필렌 멀티 필라멘트 중공단면사로서, 세 개의 중공을 갖는다.



<'LIVE AIR'의 단면>

'LIVE AIR'는 경량성, 보온성, 내광성, 내약품성 등이 우수하며, 특히 경량성과 보온성이 더욱 향상된 기능 소재이다. 특수 용융방사법을 통해 섬유단면의 세 개의 구멍에 공기층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. 'LIVE AIR'의 겉보기 비중*은 0.73 ~ 0.78로 일반 폴리프로필렌의 15 ~ 20 %, 일반 폴리에스터의 약 45 %, 일반 나일론의 약 35 % 경량화가 가능하며, 보온율은 15 ~ 20 % 향상시킬 수 있다. 'LIVE AIR'는 2015년부터 판매가 시작되었으며, 제품 경량화에 따른 작업성 향상, 소비에너지 절감, 보온성 향상에 따른 착용 쾌적성 향상 등 의류용으로 용도개발이 진행되고 있다.

* 겉보기 비중 = 원료 고분자 비중 × (1 - 중공률/100)

cf) 원료 고분자 비중 : 폴리프로필렌 0.91, 폴리에스터 1.38, 나일론 1.14

♠ MITSUBISHI RAYON Homepage News 2015년